

이동통신업체 SKT·LGT 아파트 전기 '맘대로'

17개월 무단 사용...입주민들 전기료 청구

이동통신업체인 SKT와 LGT가 무선 중계기를 설치·운영하면서 광주 지역 한 아파트의 전력을 무단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국전력 전남지사와 광주시 북구 운암동 L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SKT(11대)·LGT(3대)가 지난 2006년 2월 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휴대전화 고객들의 이용 편의와 통화 품질 개선을 위해 14대의 무선중계기를 설치했다.

이통사는 중계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과 논의를 거쳐 사용기간·사용조건 등의 내용이 담긴 전기 사용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SKT는 당시 입주민대표 등으로부터 중계기 설치 의사를 받지 않고 전기를 무단 사용해 왔으며, LGT는 아파트 대표자 직인도 없는 전기 사용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 중계기를 설치·운영해 왔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아파트 공동 전기요금(가로등·주차장·형광등·승강기전력 등) 감사에서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 나온 것을 이상히 여긴 입주민의 제보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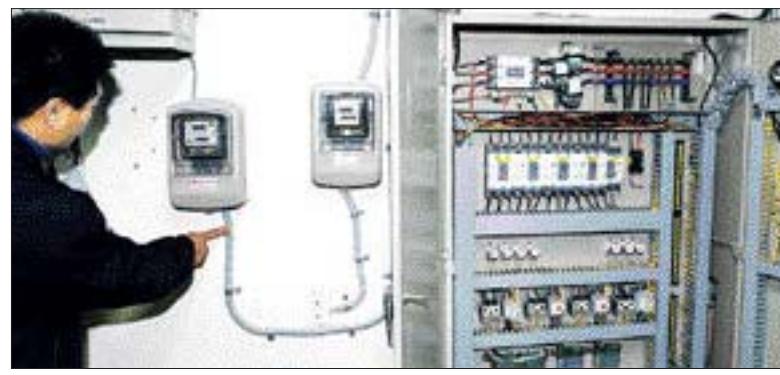
입주자대표회는 두 이통사가 2006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7개월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이 ▲SKT 390

만원 ▲LGT 300만원으로 그동안 입주민들이 공동전기요금 명목으로 나눠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는 중계기 설치·사용에 따른 단독 계량기 설치와 입주민들이 지금껏 낸 전기요금의 3배(2천70만원)를 보상해 줄 것을 이통사측에 요구했다.

입주민 김모(40)씨는 "사회적 책임이 큰 대기업이 남의 집 전기를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어디까지나 '도전'(盜電)에 해당되는 만큼 사용전력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이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L아파트 층에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전기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27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L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이동통신사 중계기. 이통사들은 지난해 8월 아파트의 허락없이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자 단독 계량기를 설치하였다.

/위즈링기자 jrwi@kwangju.co.kr

'돈 선거' 농협 조합장 구속영장

광산경찰 수사 확대

농협 조합장 오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 광주 S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김모(여·45)씨 등 2명에게 모두 100여만원을 준 혐의다. 경찰은 또 현금을 받은 혐의로 김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오씨는 선거과정에서 돈을 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의 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기자 kps@kwangju.co.kr

게임하던 휴학생 숨져

지난 27일 낮 12시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W아파트에 사는 광주 J대 2년 휴학생 김모(23)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5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아버지는 경찰에서 "잠을 깨우려고 아틀방에 들어가 봤더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친구와 함께 집 인근 PC방에서 8시간 동안 게임을 한 뒤 집에 들어와 또 다시 '던전 앤 피터' 게임을 하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인터넷 게임을 자주 즐겼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장시간 게임을 하다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여수엑스포 성공 기원 법회

전남도 불교연합회 스님들이 28일 오전 무안군 남악리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신년하례 법회에서 2010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박준영 전남지사 등 기관단체장과 백양사 성오·화엄사 종삼·송광사 영조·대흥사 범각 스님 등 조계종 4대 교구 본사 주지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위즈링기자 jrwi@kwangju.co.kr

장애학생 성폭행 교장 중형

인화학교 항소심 5년 선고 등 3명 법정구속

장애학생들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이 중형과 함께 줄줄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28일 교내에서 장애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 학교 전 교장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이 학교 부속 복지시설인 인화원의 전 생활재활교사 이

모(38·구속), 박모(61)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미 구속기소된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학교 전 교사인 전모(43)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의 고소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농아자를 위한 학교의 교직원 또는 부속 복지시설의 생활 보육교사로 누구보다 청각장애 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어린 학생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과학

치하고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힌 점을 감안해 별도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교장의 경우 교장으로서 13세의 어린 장애학생을 교내에서 베젓이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2000~2004년 당시 7~22세인 청각·지체장애 학생들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교장 김씨는 교사채용을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효 지난 성폭행 손배소 '승소'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도 공소시효가 지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 어린 자매의 아버지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승소.

○~28일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1998년 광주시 서구 한 주택에 거주하던 A씨의 초등학생 1학년과 유치원생 자매들이 집주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나 7년이 지난 2005년 12월께 TV고발 프로그램을 보며 성폭행 사실을 뒤늦게 인식했다는 것.

○~A씨는 B씨를 처벌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어 대신 2007년 1월 광주지법에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

○~이에 광주지법 민사28단독 이병희 판사는 지난 25일 B씨는 A씨의 자매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은기자 emlee@

마음과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 주는 - 산운산복분자 酒

